

“예,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남부 지역의 ‘세사르 차베스의 날’ 제정*

박 구 병
아주대학교

박구병(2015), “예,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남부 지역의 ‘세사르 차베스의 날’ 제정.

초 록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서남부 주에서 제정된 ‘세사르 차베스의 날’을 통해 해당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억을 장려하고 사회적 실체의 다양성을 승인하는 공휴일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차베스의 농업노동자 운동은 1990년대 말까지 미국 중등학교의 교과서에 유일하게 기술된 치카노 운동의 주요 사례였다. 캘리포니아의 주 당국은 차베스의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핵심을 포착해 이를 봉사과 학습의 날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지역 봉사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차베스의 날은 연방 공휴일이 아니지만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 인종과 정치적 중요성이 증대하는 라티노의 지분을 인정한 실례이다. 차베스의 독보적인 활약상, 독자적인 영역을 모색하려는 치카노의 염원과 더불어 1960년대 이래 급증한 치카노 주민들의 미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기여가 차베스의 날 제정을 이끈 견인차였다. 차베스의 날의 제정은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의례의 도입이자 문화적 정의의 실현이었고 미국이 직시해야 하는 인종차별적 관행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었다. 차베스의 날에 진행되는 교육, 봉사, 기념이 차베스를 비롯한 라티노의 적극적인 행동과 저항을 순치하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종적·종족적 다양성을 감안한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 모색의 계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세사르 차베스의 날, 캘리포니아, 라티노, 주(州) 공휴일, 국민적 정체성, 기억의 정치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들어가며

1900년 무렵 미국의 연방 공휴일은 크리스마스, 신년 축하, 7월 4일, 추수감사절 등 4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20세기에는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전몰장병 추모일, 노동절, 콜럼버스의 날, 재향군인의 날이 추가되었다. 연방 공휴일의 추가 과정은 국민 통합의 대의가 인종적·종족적 다양성을 어떻게 포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휴일은 해당 사회의 모범적 기준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지배적 가치와 기억을 장려할 뿐 아니라 특정 집단의 독자적 정체성이 어떤 맥락에서 보편적 기념 대상으로 승격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달리 말해 사회적 실체의 다양성을 승인하는 표지(標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7세기 초 이래 혈연이 아니라 유럽인들의 자발적 이주, 강제적 피난과 탈주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국가였기 때문에 뚜렷한 자의식을 지닌 다양한 구성원들을 국민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 시대부터 토대를 갖 추기 시작한 집단적 자의식이나 국민적 정체성은 독립투쟁기를 거쳐 미국예외론(American exceptionalism)이라는 관념으로 뿌리를 내렸고 이는 20세기 전반기까지 각양각색의 차이를 녹여내는 용광로처럼 일종의 통합 이데올로기로 서 엄청난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미국이 ‘자유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이미지 이면에서 인종주의적 차별 관행을 타파하지 못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배영수 2004, 107-108).

미국인들은 2월을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¹⁾로, 9월 15일부

1) 1926년 하버드대학교 출신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가 카터 우드슨이 제안한 이 기념 의례는 원래 ‘니그로 역사 주간(Negro History Week)’으로 불리다가 얼마 간 세월이 흐른 뒤 현재의 명칭이 붙여졌다. 우드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인물 프레드릭 더글러스와 에이브러햄 링컨의 생일이 들어 있는 2월의 둘째 주를 기념 주간으로 선정했는데, 사실 2월은 이들 외에 흑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과 단체의 탄생과 관련이 깊다. 예컨대 1868년 2월 탄생한 W. E. B. 두 보이스는 19세기 말부터 장기간에 걸쳐 흑인 권리 향상 운동의 대표자로 활약했고 1909년 2월에 뉴욕에서 유색인지위향상전국위원회(NAACP)의 창립을 주도했다. 두 보이스는 1961년 아프리카 가나로 망명해 그곳에서 사망할 때까지 줄곧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관행에 저항했다. 또 남북 간 내전의 종식 이후 1870년 2월에는 흑인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수정헌법 제15조가 마련되었고 처음으로 흑인 상원의원이 선출되기도 했다.

터 10월 15일을 ‘히스패닉계 유산의 달(National Hispanic Heritage Month)’²⁾로 준수하면서 이런 불평등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Day 2003, 330). 특히 1986년부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1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1월 셋째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을 때,³⁾ 소수 인종 관련 기념일은 처음으로 연방 공휴일의 반열에 올랐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표현은 미국 사회가 겪어온 인종 문제의 민감성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1960년대 격변의 시대에 농업노동자들의 지도자로서 떠오른 세사르 차베스(César Estrada Chávez, 1927-1993)는 라티노, 특히 멕시코계 미국인(Mexican Americans)에게 마틴 루터 킹 목사에 견줄 만한 명성과 영향력을 발휘했다. 차베스의 활동은 오랫동안 멕시코계 미국인이 겪어온 억압과 차별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1960년대 후반 흑인 민권운동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도시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치카노(Chicano/a)⁴⁾ 운동과 궤를 같이 했다.

차베스가 이끈 농업노동자 운동은 그 자체의 급진성 여부와 상관없이 1960년대 이래 인종적 편견을 투영해 범주화했다는 이유 때문에 멕시코계 미국인이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집단 정체성에 착목한 치카노 운동과 결부되었고 그런 독자적 움직임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

-
- 2) ‘히스패닉계 유산 주간’은 1968년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에드워드 R. 로이발이 발의하고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법안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 기념 주간은 1988년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에스테반 토레스가 발의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행한 법안에 따라 1개월로 확대되었다. <http://www.hispanicheritagemonth.gov/> 참조.
- 3) 대다수 공휴일을 월요일에 준수하도록 미국 법의 연방 공휴일 조항을 수정하는 조치는 1968년 6월에 조인된 ‘월요일 공휴일 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에 따른 것이었다. 킹 목사의 생애를 기념하는 연방 공휴일 법은 1983년에 통과되었지만 3년 뒤 발효되었고, 1991년 뉴햄프셔 주 의회가 ‘기도와 금식의 날’(Fast Day)을 폐지하는 대신 ‘민권의 날’(Civil Rights Day)을 제정함으로써 ‘마틴 루터 킹의 날’은 모든 주가 준수하는 진정한 의미의 연방 공휴일이 되었다.
- 4) 원래 치카노는 20세기 초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안락한 ‘제1세대’ 멕시코계 미국인(Mexican “safe” minorities)들이 1930년대 말 이래 갖 이주한 멕시코인을 비하하려는 의도에서 낮춰 부르는 표현이었다(Vargas 2011, 348).

었다. 이런 영향력을 입증하듯 미국에서 가장 주민 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는 의회 토론과 법률 제정,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2000년 차베스의 생일인 3월 31일을 공휴일로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텍사스, 애리조나, 콜로라도 주가 이 날을 기념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이 글에서는 치카노 농민운동가 세사르 차베스의 생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서남부 일부 주의 사례에 주목해 미국 사회 속에서 치카노의 저항과 적응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소수 인종·종족 관련 활동과 그에 대한 기억이나 의례가 어떻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의 폭을 넓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차베스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기념할 만한 자취를 남겼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세사르 차베스의 날(이하 차베스의 날로 약칭함)’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의 특기할 만한 사항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념일 제정이 미국에서 막강한 소수 인종 집단으로 자리 잡은 라티노 사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아울러 그동안 비유럽게 주민들을 배제하거나 소홀히 다뤄온 인종주의적 지병(持病)을 치유하고 관습적인 집단 정체성의 폭을 넓히고 그 변화를 이끄는 데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헤아려볼 것이다.

차베스의 날은 라티노의 집단 정체성과 미국 사회 내의 위상을 승인하는 동시에 공휴일 제정이나 재규정을 둘러싼 논란과 마찰의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기억의 터(les lieux de memoire)’ 또는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ies)’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준다.⁵⁾ 따라서 차베스의 활동과 차베스 기념일은 미국 사회가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의 조화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구성

5) 예컨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프랑스 사회의 격렬한 논쟁은 혁명 발발 후 한 세기 가까이 지속되었고 1880년 7월에 이르러 7월 14일이 점차 ‘분노의 날’에서 프랑스인들의 기념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는 당파적 유산일 수 있는 기념일이나 국경일이 해당 사회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주요 상징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피에르 노라 외 2010, 335, 343).

하게 될지 검토하는 데 적절한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II. 세사르 차베스의 활동과 치카노 정체성의 상징화

대공황기의 빈곤과 이주는 여느 멕시코계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차베스의 유년 시절을 요약하는 단어였다. 차베스는 애리조나 주 유마의 빈곤한 농민 가정에서 출생한 뒤 일자리를 찾으려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이주해 캘리포니아 북부 산호세의 살 시 푸에데스(Sal si puedes, 할 수 있으면 떠나라) 지역에 정착했다. 1944년부터 2년 동안 해군에 입대하고 인종차별이 횡행한 탓에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낸 차베스는 1952년 살 시 푸에데스로 돌아와 지적 스승인 도널드 맥도넬 신부와 만나게 되었고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공포한 회칙(回勅)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 새로운 것에 관해)’을 함께 읽으며 가톨릭 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익히고(Bardacke 2011, 60-61), 노동운동의 역사와 주요 주제들을 공부했다(Levy 1975, 84, 89-93). 그 뒤 차베스는 1960년대 중반 이래 캘리포니아 농업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조직하면서 세인의 이목을 끌었고 치카노 운동의 대부로 부각되었다. 차베스가 주도한 농업노동자 조합의 창설과 파업, 불매 운동은 비슷한 시기 흑인 민권운동의 흐름에 견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차베스가 남긴 족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평생 동지 돌로레스 우에르타와 함께 최저임금, 사회보장연금, 주택·의료·교육 보조금의 지불을 촉구하며 농업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앞장선 활동이다. 농업노동자들은 미국노동총연맹(AFL)뿐 아니라 1936년 전국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될 정도로 오랫동안 경시되어왔고 1940년대 초부터 1965년까지 이들의 대다수는 다른 부문의 미국 노동자들과 법적으로 구별되는 ‘브라세로(bracero)’였다(Bardacke 2011, 167).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전시(戰時)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고자 미국 정부가 1942년 8월 멕시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을 임대 고용한 정책이었다.⁶⁾ 차베스는 1962년 미국농업노동자연합(United

Farm Workers of America: UFW)의 모체인 전국농업노동자협회(National Farm Workers Association: NFWA)를 창설하고 1966년 캘리포니아 중부 델라노(Delano)에서 주도(州都) 새크라멘토까지 340마일에 이르는 순례(peregrinación) 행진과 1968년 25일간의 단식을 통해 농업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휘했다. 엄밀히 말해 차베스는 파업이라기보다 불매 운동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면서 소비자들이 농장주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다(Bardacke 2003, 243; 임상태 2013, 139). 특히 1965년부터 3년간 지속한 신선 포도(table grape) 불매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의를 위한 투쟁(La Causa)’으로 각인되었고 로버트 케네디 같은 유력 정치가와 민권운동 지도자를 포함해 약 1,700만 명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차베스와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1975년 6월에 「캘리포니아농업노동관계법California Agricultural Labor Relations Act: CALR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 규약의 일부로서 농업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전례 없는 획기적 조치로 평가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농업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막고 재배회사들과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몇 년 뒤 차베스는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이 전개한 투쟁의 의의를 “미국인들이 간직한 채 살고 있는 수치와 오명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공격”으로 정리하고 조직이 생겨난 곳에서 “여러 형태의 불의와 부당한 처사는 곧 옛일이 되었다”고 자평했다(Chávez 1984).

하지만 1970년대 말 차베스는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의 분권화에 거부하면서

6) 브라세로는 에스파냐어로 팔(arm)을 뜻하는 브라소(brazo)에서 파생된 단어로 육체 노동자를 뜻한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초청 노동자(guest workers)’ 프로그램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전시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인원 450만 명이 넘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농장과 철도 관련 노동에 고용되었다. 1945년 통계에 따르면, 농업노동자와 철도 노동자는 각각 5만 명과 7만 5천 명 정도였다. 철도 노동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중단되었지만 농업노동자 프로그램은 양국 정부가 브라세로 인권 유린 보고서의 제출과 각계의 비판을 의식해 1964년 공식 중단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연합의 지도부와 일반 조합원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1979년 3월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의 미래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법률 자문위원 제리 코헨과 핵심 조직자 마셜 갠츠, 짐 드레이크가 물러난 뒤 1980년 11월부터 1981년 10월까지 내부투쟁의 격동기를 겪은 차베스는 전국 대회에서 주로 비(非)라티노 반대자들을 축출함으로써 조직 자체의 손상을 초래하고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켰다(Garcia 2012, 297). 그리고 차베스는 조합원의 회비보다 외부의 기금 지원에 의존한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일한 조직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Bardacke 2011, 721). 이런 뼈아픈 실패는 1980-1990년대에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의 회원 수와 영향력이 줄어드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Martín 2014, 113).

농업노동자들의 조직자 차베스는 또한 가톨릭 사회 운동과 연계된 도덕적 지도자로서 미국 노동운동 계보에서 독특한 입지를 구축했다. 차베스에게 마하트마 간디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특히 차베스는 비폭력을 ‘도덕적 유술(moral jujitsu)’로 묘사한 간디를 인용하며 상대방의 균형을 잃게 만들면서도 원칙의 준수를 강조했다(Levy 1975, 270). 차베스는 마틴 루터 킹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1968년 킹이 제안한 ‘빈민의 행진과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비폭력주의를 역설하고 치카노 운동의 급진적 흐름과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영향으로 가톨릭신자로 자라난 차베스는 때때로 성경 구절과 교회 문서를 인용하고 복음 전도자처럼 행동했으며(De León 2005, 61), 피켓 시위와 파업 투쟁 과정에서 피살당한 노조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순교자’로 칭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Jensen et al. 2003, 343). 그리하여 차베스의 투쟁은 일부 가톨릭 사제뿐 아니라 오순절과 같은 개신교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평화적 순례 행진과 더불어 1968년 25일간, 1972년 24일간, 1988년 36일간 전개한 세 차례의 장기 단식투쟁이 비폭력 투쟁의 상징이 되었을 때, 차베스는 단식투쟁의 취지를 참회와 정의를 위한 희생, ‘사랑을 위한 단식’, 농업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의 상기(想起), 농약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한 단식’ 등 영적 훈련과 활동으로 정리했다(Dalton 2003,

135; De León 2007, 873).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베스는 주변에 알리지 않고 주기적으로 애리조나 사막을 찾아 금식기도를 행하는 등 독실한 가톨릭 신자의 면모를 유지했다(De León 2007, 866).

또 다른 고려사항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인권, 자유, 평등의 가치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도록 권고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영향력이다(Ospino 2013, 403). 물론 가톨릭교회는 포도 파업과 불매 운동이 벌어진 3년간을 포함해 1973년 상추 불매 운동이 전개될 때까지 농업노동자들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했지만(De León 2007, 867), 일부 가톨릭 사제들과 개신교 종파들은 파업 이전부터 농업노동자들을 돕고 미국 농업노동자연합을 지지했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학자나 치카노 활동가들이 차베스를 비종교화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Lloyd-Moffett 2005, 42), 차베스는 기독교 신앙과 과달루페 성모상 같은 문화적 상징에 의지하면서 불매 운동을 노조 조직화와 농업노동자의 복지를 추구하는 민권운동인 동시에 일종의 신앙적·도덕적 사명으로 인식했다(Shaw 2008, 38).

차베스가 전개한 온건하고 현실적인 노선의 농업노동자 운동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청년층의 저항과 더불어 미국 사회에서 치카노라는 인종적·종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사실 차베스가 농업노동자 운동의 성공보다 정신적 지도자로서 치카노 운동의 확립과 관련해 더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베스의 신선 포도 불매 운동이 한창일 때, 농민 극단(Teatro Campesino)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농업노동자들의 고단한 삶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차별 경험을 담아내는 극을 공연하면서 차베스의 운동을 지원한 루이스 발데스는 “파업(huelga)으로 대변되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활동 아래 우리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국가를 수립했고 세사르 차베스는 우리의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Bardacke 2003, 237).

치카노 운동이 이목을 끌고 차베스가 치카노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부상한 배경에는 단연 1950-1960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멕시코계 미국인과 미국 서남부의 에스파냐어 사용 인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도드라진

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전자는 287,614명에서 576,714명으로 2배 증가했고 후자는 229만 명에서 346만 명으로 늘었다(Vargas 2011, 274, 300). 또 1951-1960년 전체 이주민 가운데 라티노의 증가율은 22.5%, 1961-1970년에 39%, 1971-1980년에는 40.3%를 기록했다.⁷⁾

그렇지만 1960년대 후반까지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처한 종속적 지위와 상태는 멕시코 이주민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웨버의 표현에 따르면, “고국 내의 이방인”처럼 보였다(Weber 1973, vi; Guerin-Gonzales 1994, 548). 더욱이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는 사회 운동들은 효과적인 공조를 이루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전개되었다. 차베스의 농업노동자 조합 운동이 영향력을 넓혔을 때, 젊은 세대의 치카노 운동 지도자들은 미국 사회 내 적응과 동화를 지향하는 기존 운동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치카노의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한층 더 급진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운동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흑표범당(Black Panther Party)을 본뜬 치카노 고등학생의 급진 조직 브라운베레(Brown Berets), 뉴멕시코 주에서 토지 반환을 주장하고 무장투쟁까지 계획한 레이에스 로페스 티헤리나의 연방토지수여동맹(Federal Land Grant Alliance) 등을 들 수 있다. 치카노의 정체성을 급진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구성하려는 이런 운동의 존재는 어떤 측면에서 차베스를 치카노 운동의 적절한 상징으로 볼 수 있는지 되물게 만든다. 차베스는 ‘독자적인 인종 · 종족(La Raza)’으로 요약되는 전투적인 치카노 ‘민족주의’나 독자적인 치카노 정당의 구성에 반대하는 대신 농업노동자 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한 로버트 케네디와 민주당을 지지했고(Bardacke 2003, 239), 1980년대 초 미국농업노동자연합 연차 총회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자 ‘치카노 로비’의 구성을 보고하는 등 치카노 정

7) 이 비율은 1981-1990년에 47.2%, 1991-2000년에 47.7%, 2001-2010년에는 50.1%에 이르렀다(김연진 2012, 37). 2010년 미국의 정기 인구 조사에 따르면, 치카노는 전체 라티노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3,179만 명을 기록했고(U. S. Census Bureau 2011, 2-3), 2014년 7월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라티노가 전 주민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백인의 비율을 능가하면서 처음으로 최대 인종 집단이 되었다.

체성의 진수라기보다 미국 자유주의의 영웅이나 모범적 통합 사례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Bardacke 2003, 240; Martín 2014, 109).

또한 치카노와 미국으로 건너온 멕시코 이주민의 관계에는 미묘한 측면이 있었다. 1960년대 중반 차베스를 비롯한 치카노 농업노동자들은 브라세로를 포용할 여유가 없었고 주 당국에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유입 차단을 요청 하곤 했다. 1965년 차베스는 파업 투쟁을 주도하면서 멕시코인들을 파업파괴자로 활용하는 거대 과일 재배회사 지우마라(Giumarra)와 장미 재배업자들에게 저항했다(Bruns 2013, 112, 118). 이들은 1964년 공식 중단된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당국의 협조 아래 사실상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차베스뿐 아니라 1967년 5월 텍사스의 엘파소에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치카노 운동가들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이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한편, 1930년대에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 Fair Labor Standard Act」과 「전국노동관계법」을 농업노동자들에게 확대 시행할 것, 그리고 멕시코인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국경산업화프로그램’의 통근제(通勤制) 같은 변칙적인 노동력 충원 방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Vargas 2011, 332, 338).

하지만 치카노와 멕시코 이주민들의 관계에 대해선 좀 더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베스가 멕시코인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반대하면서도 멕시코 이주민들의 합법화를 위한 캠페인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차베스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착취에 시달리고 농업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거나 노조 결성 시도를 약화시키는 데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비등록(undocumented) 외국인 노동자들에 반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루이스 데 레온이 지적하듯, 차베스의 오랜 비판자인 루벤 나바레테처럼 1960년대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차베스의 반대를 이주민 통제 정책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하고 “차베스 역시 불법 체류자들의 사면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차베스의 활동을 오용하는 사례일 뿐이다(De León 2010; Martín 2014, 107).

III. ‘세사르 차베스의 날’ 제정 과정과 쟁점

1. 기념일의 제정 배경과 과정

치카나 활동가 엘리자베스 마르티네스에 따르면, 차베스의 농업노동자 운동은 1990년대 말까지 미국 중등학교의 교과서에 유일하게 기술된 치카노의 주요 활동 사례였다. 농장주와 폭력배의 구타, 학대에 맞선 농업노동자들의 투쟁이나 농약 사용에 반발해 수년간 지속된 투쟁, 1968년 고등학생 수천 명의 동맹 파업과 휴교 투쟁, 1970년 8월 말 2만여 명이 참여한 베트남전 반대 평화행진과 시위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는 폭력 진압으로 치카노 3명, 특히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기자 루벤 살라사르가 살해된 사건 등 다른 치카노들의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치카노의 단결과 힘(Chicano Power)’을 보여주는 벽화와 사진만으로 이런 다양한 대중 운동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Martínez 1999, 34; Vargas 2011, 330).

그러므로 차베스의 독보적인 활약상, 독자적인 영역을 모색하려는 치카노의 염원과 더불어 1960년대 이래 급증한 치카노 주민들의 미국 사회와 역사에 대한 기여가 차베스의 날 제정을 이끈 견인차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법무부의 검토 없이 어떤 주에서도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할 수 없게 만든 1965년 선거권법의 통과 이후에도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 뉴멕시코 출신 조셉 몬토야가 유일한 멕시코계였고 연방 하원의원 역시 캘리포니아 출신 1명과 텍사스 출신 2명 등 3명에 지나지 않았다. 고위 선출직과 임명직 관리와 의원 가운데 멕시코계 대표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반면, 1968년 당시 전체 인구 대비 베트남 전쟁의 치카노 사망자 비율은 2배 이상 높아 비대칭적인 상태가 뚜렷했다(Vargas 2011, 306, 328).

1972년 연방 상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조지 맥거번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가리켜 “우리의 모든 소수집단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캘리포니아 출신 사상자들의 15%, 그리고 미국 서남부 출신 전체 사상자들의 10%가 멕시코계

미국인이었다(Mariscal 1999, 15). 하지만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에스파냐어 구사 선출직 공무원의 수는 시, 카운티, 주, 연방 등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두 배 증가해 3,000명이 넘었고, 그 뒤 10년 동안 지방 의회 의원들의 증가에 힘입어 41% 정도 늘었다(Vargas 2011, 351). 1980년 무렵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73%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애리조나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Vargas 2011, 344), 에스파냐어 구사 선출직 관리와 의원 중 80%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3년 4월 차베스가 사망한 뒤 그를 추모하고 그의 유산을 기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예컨대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LA)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치카노 연구 프로그램의 학과(學科) 승격을 촉구하면서 5월 말부터 2주일 동안 단식투쟁을 펼치고 6월 초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관통하는 17마일의 행진과 결합하면서 이 사안을 치카노 사회를 비롯한 도시 전체의 관심사로 확대시켰다.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찰스 영 총장은 기력이 쇠한 단식투쟁 동참자들에게 학과의 신설을 약속했고 신설 학과는 ‘세사르 차베스 치카노/치카나 연구 학과’로 명명되었다(Martínez 1999, 222). 그 뿐 아니라 소수 인종 집단 연구(Ethnic Studies) 프로그램을 뒤엎으려는 정책에 반발한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라티노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스탠포드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재직하던 치카나 교수 세실리아 부르시아가에 대한 예고 없는 해고 통보에 항의한 여학생들의 단식투쟁 등 1993년 라티노 청년들의 연쇄적인 저항에서 차베스의 영향력과 그가 선사한 영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Martínez 1999, 214).

1999년 2월 26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리처드 폴랑코는 주 상원 법안 984를 대표 발의해 차베스의 날을 주(州) 공휴일(state holidays)로 지정하고 공립학교에서 농업노동자 운동의 역사와 차베스의 활동에 대해 학습하고 기념하도록 명시했다. 차베스의 날은 법안 발의 후 네 차례의 수정을 거쳐 캘리포니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뒤 2000년 8월 18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이 데이비스가 서명함으로써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2001년부터 3월

31일을 기념일로 준수하게 되었다. 3월 31일은 차베스의 생일이자 차베스가 1962년 전국농업노동자협회의 창설을 결의한 날이었다.

차베스가 사망한 뒤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설립한 세사르 차베스 재단 역시 차베스 기념일 제정과 교육과정 마련에 기여했다. 차베스 재단은 직장 밖과 지역 공동체에서 곤경에 직면한 농업노동자들과 라티노 빈민 노동자들을 돕고 교육취약지구의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며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포함한 4개 주에서 50만 명 이상이 청취하는 에스파냐어 교육 라디오 방송을 운영했고 차베스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지원하려는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와 협력해 1999년 표준교육과정을 발행했다. ‘봉사와 학습을 위한 차베스의 날’을 제정한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984의 조항들은 캘리포니아 교육 규약에 삽입되어 공립학교에서 차베스의 생애와 활동을 배우도록 명기했다(William-White et al. 2013, 120). 이 법안에 의거해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와 봉사활동의 증진을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교육위원회는 기념일 제정의 배경과 더불어 초중등학생용 차베스 전기, 교사용 수업계획안, 차베스의 연설과 저술 같은 1차 자료, 차베스와 함께 활동을 전개한 이들의 구술사 등 학습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공동체 봉사 활동을 독려했다.

예컨대 10-12학년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발전 과정을 비롯해 차베스의 활동과 철학을 낳은 역사적 배경, 마하트마 간디의 모범을 따른 비폭력 투쟁과 사회적 변화를 위한 헌신을 가르치도록 요청되었다. 또 학생들은 산업 혁명 시기에 노조가 생겨난 이유와 취지,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의 창설 이유를 비교·검토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노동 조건과 환경에 이를 적용하도록 배우게 될 것이었다. 나아가 단식과 정치, 폭력과 민권운동에 대한 벨 슨 만델라와 차베스의 태도를 비교하거나 차베스의 다면적 활동과 미국 사회에 대한 차베스의 기여를 검토하고 20세기 농업노동자들의 임금과 빈곤 상태 등에 대해 학습하며,⁸⁾ 차베스의 비폭력 사회정의 실천 운동의 유산을 기념하는

8) http://chavez.cde.ca.gov/ModelCurriculum/Teachers/Lessons_10-12.aspx.

행진을 조직하거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었다(Lloyd-Moffett 2005, 49). 이와 관련해 실제 봉사활동의 폭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베스의 날에 학생들의 학습과 폭넓은 지역 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사용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침에 따르면, “행진, 종교 의식, 정치적 옹호 등이 차베스가 수행한 활동의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이 보조금은 그런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로비 활동, 행진, 청원, 정당의 공약과 입법 지지에 관한 행사 참여는 금지”될 터였다 (Westheimer and Kahne 2004, 244).

2002년 6월에는 차베스의 날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차원의 공식 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주 정부청사, 2년제 공립 지역전문대학, 도서관, 공립 초중등학교의 휴무가 결정되었고 이 결정은 2003년 3월 3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까지 확대되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뉴멕시코 등지에서도 차베스 기념일의 선택적 공휴일 준수를 공표했다. 차베스의 날 제정 이후 샌프란시스코의 세사르 차베스 초등학교를 비롯해 여러 학교, 주민자치센터, 공원 등에 차베스의 이름이 붙었고 2003년에는 사망 10주기를 맞아 미국우정(郵政)공사에서 발행하는 우표에 차베스의 초상이 등장했다 (Ketelle 2014, 4-5). 또 2006년 12월에 차베스는 필생의 대적이라 할 만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함께 제1회 캘리포니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獻額)되었고(De León 2007, 857),⁹⁾ 2007년 오스틴 소재 텍사스 주립대학교에는 차베스의 조각상이 세워졌다.

2. ‘세사르 차베스의 날’에 대한 관심과 논란의 쟁점

차베스의 날의 제정으로 차베스와 농업노동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순조롭게 준수된 것만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공무원들에게 3월 31일은 유급휴일이었으므로 기념일 준수는 예산 확보

9) <http://www.californiamuseum.org/post/1st-annual-california-hall-fame>.

문제와 연동되었다. 캘리포니아의 예산 부족 탓에 차베스의 날 준수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2003-2004년 주 예산에 관한 의회 법안 1756이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차베스의 날의 유예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차베스의 날을 특정 인종 집단과 연결시키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 즉 공휴일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와 관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2002년 3월 로스앤젤레스 시 의회는 시청 직원 2000명에게 콜럼버스의 날 대신 차베스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키게 하는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 논란도 예산 문제와 관련이 있긴 했지만 차베스 기념일의 지정이 다른 공휴일의 준수와 충돌을 빚을 수 있는 예상외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다. 연간 10일의 연방 공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시청 직원들에게 차베스의 날을 유급휴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었을 테지만 이 조치는 약 500만 달러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프로야구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 감독인 토미 라소다를 비롯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차베스의 날이 콜럼버스의 날을 대체할 수 있다는 데 반대했고 결국 논란은 콜럼버스와 차베스 모두에 영예를 부여하고 그들에 대한 기억의 가치를 깎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선에서 정리되었으며 시 재정이 더 확보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전망되었다(McGreevy 2002).¹⁰⁾

2011년 5월에 텍사스에서는 차베스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해 논란이 재발했다. 텍사스 주 상원이 휴일의 기본 요건을 재규정하고자

10) 이미 미국에서 콜럼버스의 날과 ‘아메리카 인종의 날(Día de la Raza)’이라는 대립적인 명칭은 같은 날(10월 12일)에 대한 극명하게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식민시대 이래 비공식적으로 콜럼버스의 항해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졌지만 콜럼버스의 날은 1937년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와 개혁 정신을 대표하는 ‘유럽 영웅의 발견’은 1980-1990년대 진보적 성향의 역사가들과 원주민 운동가들이 주도한 콜럼버스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 속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politically incorrect)’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었고, 콜럼버스는 원주민 대량 학살과 결부되었다. 사우스다코타와 앨라배마 주는 콜럼버스의 날을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날’로 개명했고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콜럼버스의 날 성명서에서 식민 지배의 굴레를 쓰게 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통스런 경험을 분명히 인정했다(Polletta 2004, 166).

마련한 법안은 차베스의 날이 선택적 공휴일에서 취소될 가능성을 높였다. 상원 법안 505로 알려진 이 법은 차베스의 날을 라티노의 다른 기념일, 즉 ‘텍사스 라티노 유산의 날’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멕시코 독립전쟁의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었는데, 텍사스 주 하원 의원, 엘파소 소재 텍사스 주립대학교(UTEP)의 교수와 학생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Cervantes 2011). 반대자들은 차베스와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이 후속 세대에게 보여준 모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베스의 전통을 계승해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는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에 찬사를 보냈다.

다른 한편에서 차베스의 날을 연방 공휴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중음악가 카를로스 산타나가 2008년 3월 말 로스앤젤레스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유서 깊은 올베라 거리에서 이런 시도의 주요 지지자로 나섰다. 2008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버락 오바마도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차베스의 날의 연방 공휴일 지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베스와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의 단합 구호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Si, se puede)’는 2008년 오바마의 선거 캠페인 구호인 ‘Yes, We Can!’으로 재탄생했다(Shaw 2008, 92; Martín 2014, 115). 산타나에 따르면, “차베스의 시 세 푸에데는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으로서 차베스의 날을 대표 발의했던 리처드 폴랑코에게 이 캠페인은 단지 공휴일만이 아니라 더 큰 변화와 공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공동체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였다(Burch 2008).

‘봉사와 학습을 위한 차베스의 날’을 연방 공휴일로 격상시키려는 운동의 지지자들로서는 차베스의 생애와 활동이 무엇을 대변하는지에 대해 미국인들이 더 많이 알도록 해야 한다는 대의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 즉 국경일 제정을 위해 어떤 법안도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연방 하원의 규칙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Burch 2008).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에 차베스의 날의 연방 공휴일 지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2011년 3월 차베스의 날을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차베스를 ‘진정한 정의의 대변자’와 ‘비폭력 투사’로 극찬하면서 매년 3월 31일을 연방 차원에서 차베스의 날로 선

포했다.¹¹⁾ 이어 같은 해 9월 14일 내무부 장관은 차베스가 말년에 거주한 캘리포니아 킨(Keene)의 라파스 농장(Nuestra Señora Reina de La Paz)을 국가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승인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0월에 국가사적지로 승인된 라파스 농장을 방문해 차베스센터(National Chávez Center), 차베스의 묘소와 기념 공원을 둘러보고 이곳을 국가기념건조물(National Monument)과 국가역사유적지(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했다.¹²⁾

IV. 미국의 정치적 · 문화적 다양성 증대와 라티노의 향후 전망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가 만들어낸 히스패닉이라는 단어가 관례적인 통용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차베스는 라티노라는 용어를 선호했고 이 단어는 미국 내의 불균일한 에스파냐어 사용자들 간에 일체감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Vargas 2011, 369). 치카노의 자긍심과 결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차베스는 1984년 11월 9일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코먼웰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 농업노동자들의 저임금, 열악한 주거 · 노동 조건과 전국 평균 73세에 비해 훨씬 더 낮은 평균 기대수명(49세), 높은 유아사망률과 미성년 노동 실태, 농약의 위험성 등의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열거하고 라티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이 역사적인 연설에서 차베스는 농업노동자들을 중요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대우하는 미국 농장 노동 체제의 타도가 평생 간직해온 한 가지 꿈과 목표라고 역설하면서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은 권리장전을 신봉하는 미국인들에게 결코 위협적인 적이 없었지만 항상 노동조합 이상의 어떤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언급했다.

차베스에게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은 출발점이었고 미국 서남부 치카노들에

11)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03/30/presidential-proclamation-cesar-chavez-day>.

12) <http://www.nps.gov/cech/index.htm>,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2/10/01/president-obama-establish-c-sar-e-ch-vez-national-monument>.

게 힘을 부여하는 단체로서 영원히 존속하고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을 존재였다. 차베스는 그 투쟁이 농업노동자들에게 지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우리의 투쟁은 자유로운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가 가식ियो 허위라는 점, 직장에서 동료 노동자들과 노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잔인한 거짓말이라는 점을 폭로한다. 농장주와 재배회사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실은 공허한 약속이며 여러분이 들판의 페온(채무노예)이 아니라 고용주와 동등한 존재로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도 사기일 뿐이라고 드러낸다. 또 우리의 투쟁은 법을 어긴 고용주들 때문에 농업노동자 수천 명이 여전히 수백만 달러의 체불 임금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다는 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이 자신의 대표자로 나설 수 있도록 투표한 3만6천 명의 농업노동자들이 여전히 선의로서 교섭에 임하길 거부하는 재배회사들과 노동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농장에서 미성년 노동이 그치지 않고 유아사망률이 계속 높으며 낮은 기대수명과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Chávez 1984)

또 차베스는 미국농업노동자연합의 중요성에 대해 1980년대의 언어로 바뀌, 즉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예컨대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하는 대신 연합의 활동으로 들판에서 자행되는 성추행에 맞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안전하고 질 좋은 먹을거리에 대해 강조해야 할 것이었다. 차베스에게 희망의 근거는 1960년대 피켓 시위와 전단 배포에 성원을 보낸 1,700만 명의 지지자들이 컴퓨터와 광고 기법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여전히 불매 운동에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라티노 주민의 인구뿐 아니라 정치적·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하는 추세였다. 결국 1984년 차베스의 연설에 담긴 현실 비판과 미래 전망은 소홀히 취급된 라티노의 복원과 지분 재평가를 통해 미국이 구성해온 국민적 정체성의 폭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었던 셈이다. 이 선언은 차베스의 유산과 차베스의 날을 봉사와 학습, 그리고 주류 사회 내의 영향력 증대 차원으로만 국한해 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길들여진 반대 의사나 순치된 유산도 언제든지 다시 정

치적 쟁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Polletta 2004, 170).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의 정치적 우회전과 배외주의의 재발에 힘입어 복지혜택 축소, 적극적 우대 조치 철폐, 이중 언어 사용 정책 폐지 등 세 가지 요구가 강력히 분출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 캘리포니아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하락으로 빠져들었을 때, 도시 주거 환경의 악화, 복지비용과 세금의 증대 등을 이유로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은 비난과 공격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경제적 세계화에 대한 인종주의적 역류 현상이라 할 만한 배외주의가 얼마간 득세하면서 영어 전용 운동이 전개되거나 라티노에 대한 인종주의적 위협이 재개되었다(Vargas 2011, 357). 반이주민 정서의 고조에 발맞춰 시민권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이주민들이 주정부의 보건·교육·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87 또는 ‘우리 주를 구하라’ 발의안이 1994년 선거에서 통과되었지만, 이 뜨거운 논란거리에는 1999년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1980-1990년대에 폐지 공세와 소송의 표적이 된 또 다른 정책은 1961년 3월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도입한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였다. 치카나로서는 보기 드물게 초강경 보수주의자로 부상한 린다 차베스에게 적극적 우대 조치는 “진정한 진보를 승인받기보다 영원한 희생자의 지위를 부여받으려는 요구”일 뿐이었다(Vargas 2011, 349). 캘리포니아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1996년 선거를 앞두고 고용, 계약, 대학 입학 절차에서 인종, 종족, 성별을 고려한 소수자 우대 조치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209로 구체화했고, 선거에서 5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지만 현재까지 이를 둘러싼 논란과 소송 대립,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차베스의 날 제정과 준수를 통한 차베스 존경과 대대적인 기념이 살아 있는 치카노, 라티노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시와 차별이 지속된다면, 이는 영웅의 박제화나 순치를 위한 도구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도시들이 점점 더 인종별·종족별·계급별로 분리되고 서로 유리되며 이주민의 유입과 높은 출산율에 따른 대도시의 라티노화가 가속되는 현실, 2007년

9월 무렵 대학 기숙사보다 교도소에 거주하는 라티노의 수가 2.7배가 많은 사례처럼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소수 인종 집단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Vargas 2011, 374)은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라티노의 동화나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라티노의 기여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다양성 증대 양상과 그에 따른 의견 충돌, 정책의 진퇴 속에서도 향후 미국의 국민적 정체성을 재평가하고 갱신하는 데 라티노가 기여할 여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¹³⁾

라티노의 새로운 전망과 가능성은 사회 운동으로 대변되는 아래로부터의 구성만큼이나 역사와 문화 연구를 통한 재검토, 그리고 차베스의 날 같이 다양한 사회적 실체를 승인하는 공휴일과 법률 제정, 제도 개선 등 정치적 프로젝트와의 결합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차별의 관행과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서 법 앞의 평등을 소홀히 취급하는 인종차별적 공권력의 접근 자세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없는 ‘법과 질서’의 강조는 이런 현실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현재까지 20여 년 간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바바라 박서가 일부 정치인들과 발의한 법안처럼 라티노의 전망을 후원하는 조치는 늘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농업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공정 임금, 경쟁, 투자를 위한 법, 차세대 라티노 지원기관 법 등은 외국 출신 농업노동자의 신분 조정, 이민·귀화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농업노동력 확보, 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의 확대,

13) 미국인들은 대체로 1960년대 대변동을 경험하면서 미국예외론의 맹점을 자각하고 자기 정체에 대한 고통스런 재평가에 돌입했는데, 그 핵심은 역사가 조이스 애플비가 지적한 대로 예외론의 한계를 넘어 미국의 역사적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배영수 2004, 100, 106). 그것은 배제된 비유렵계 아메리카인, 즉 억압을 경험한 소수 집단의 복권과 인종 문제에 대한 지식과 성찰을 요구했다. 1990년대 말 다양한 배경의 미국인 1,450여 명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거의 존재: 역사의 대중적 활용』을 집필한 미국 역사학자 로이 로젠츠바이크와 데이비드 셀렌에 따르면, 인종·종족에 따라 과거에 대한 미국인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 대다수 백인들이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 과거를 해석하길 선호하는 반면, 아프리카계나 원주민들은 노예제, 민권운동, 원주민과의 협정 위반 등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를 이해하려 했다. 로젠츠바이크와 셀렌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에 비해 역사적 인물과 결부하거나 일체감을 지니는 경향이 더 크며 백인보다 공적인 과거에 대한 의식이 더 강력한 편이라고 주장한다(Dennis 2004, 185).

더 나은 노동조건 제공,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임금 보장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 거래와 경쟁력 보장, 그리고 차세대 라티노 주민을 위한 상급 교육 프로그램 수행기관 수립 등을 명시했다.

V. 결론

이제까지 21세기에 접어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기념일로 공인된 차베스의 날에 초점을 맞춰 기념과 기억, 독자적인 집단 정체성의 승인과 관련해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 공휴일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인종차별 관행이라는 지병을 앓아온 미국에서 소수 인종·종족 문제는 다루기 힘든 난제이지만 연방공화국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차베스의 날은 1986년부터 연방 공휴일의 반열에 오른 마틴 루터 킹의 생일에 못 미치는 주 공휴일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적극적 우대 조치에 따른 공휴일, 즉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 수효와 정치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라티노의 지분을 인정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베스의 날은 사회적 변화의 현실을 의식해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이를 통해 확산되는 정치적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차베스의 날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말하자면 왜 ‘앵글로색슨계 백인의 자부심 구간’ 같은 것이 없는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차베스의 날의 제정은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의례의 도입이자 문화적 정의의 실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직시해야 하는 인종차별적 관행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사회 정의와 다문화 교육에 더 익숙해져야 할 국가적 지향의 표현이었다.

차베스의 농업노동자 운동을 비롯한 소수 인종 집단의 투쟁은 1960년대 중 후반 미국의 사회 운동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다양하게 만든 원천이었다.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겪어온 억압과 차별의 경험에 기반을 둔 운동 가운데 특히 고등학생 주축의 급진 조직 브라운베레, 로페스 티헤리나의 연방토지수여동맹 등의 활동은 흑인 민권운동으로부터 영감을 얻곤 했다. 이

런 흐름 속에서 치카노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용어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었다.

특정 사회의 역사에서 어떤 인물과 사건들을 기억의 신전(神殿)에 존치할 것인지, 그들이 지닌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의 정체 형성에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국민적 영웅이나 정치적·사회적 운동의 존재는 흔히 숭배와 신화화가 이루어지는 성소(聖所)일 뿐 아니라 기억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이 전개되는 전장이기도 했다. ‘기억의 정치’는 인종·종족에 따라 역사적 기억의 층위가 다를 수 있고 특정 집단에게 벗어나고 싶은 기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이와 관련해 차베스의 날은 치카노, 나아가 라티노에게 단단한 ‘기억의 터’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차베스는 치카노 정체성의 진수나 주류 문화에 대한 라티노의 동화를 협소하게 개념화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치카노의 상징을 넘어 때로는 인종을 가로지르는 미국의 영웅이 되었고 멕시코에서도 초국적인 영웅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Martín 2014, 116, 136). 하지만 차베스가 1980년대 초 이래 권위주의적 조직 운영으로 농업노동자 운동의 단결과 통합을 유지하지 못한 실패와 영향력의 하락을 경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베스의 날 제정과 준수는 마땅히 칭송 일색의 위인전 구성으로 축소되어선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차베스라는 지도자로 응집된 농업노동자 운동, 치카노 운동의 저항과 적응의 역사가 지녔던 정치적·역사적 가치를 적잖이 희석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휴일의 제정과 준수 자체뿐 아니라 이를 적절하게 기념할 수 있는 내용과 지향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의 주 당국은 차베스의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핵심을 포착해 이를 봉사와 학습의 날로 만들고 주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날에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지역 봉사를 독려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권유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까지 차베스의 날을 연방 공휴일로 승격시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행에 옮기진 않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킨의 차베스 관련 장소를 국가기념건조물과 국가역사유적지로 지정했다. 이런 교육, 봉사, 기념 활동이 차

베스의 적극적인 행동과 저항을 순치하려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라티노의 기여를 고려해 새롭고 폭넓은 국민적 정체성의 모색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살아 있는 라티노에 대한 존중과 차별 관행의 타파로 연결될 때, 그것은 차베스의 유산을 적절하게 계승하는 과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진(2012), 「미국 내 라티노 이민의 이미지와 라티노 위협론-멕시코 이민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No. 112, pp. 36-67.
- 박구병(2011), 「세사르 차베스의 변모: 농업노동자 조직가에서 치카노 운동의 정신적 상징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4, No. 3, pp. 73-96.
- 배영수(2004), 「미국 예외론의 맹점」, 미국학, Vo. 27, pp. 89-115.
- 임상래(2013), 『라티노와 아메리카: 라티노, 히스패닉, 치카노 그들은 누구인가?』, 이담북스.
- 피에르 노라 외(2010), 『기억의 장소 1-공화국』, 김인중 · 유희수 · 문지영 · 양희영 옮김, 나남출판.
- Bardacke, Frank(2003), “César Chávez: The Serpent and the Dove,” Charles W. Calhoun(ed.), *The Human Tradition in America 1865 to the Present*,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pp. 235-250.
- _____(2011), *Trampling Out the Vintage: César Chávez and the Two Souls of the United Farm Workers*, London and New York: Verso.
- Bruns, Roger(2013), *Encyclopedia of Cesar Chavez: The Farm Workers' Fight for Rights and Justice*, Santa Barbara and Oxford: Greenwood.
- Burch, Wendy(2008), “Rally for a New National Holiday,” *ABC 7 Eyewitness News*, March 26, <http://abclocal.go.com/kabc/story?section=news/local&id=6043773>.
- Chávez, César(1984), “Address to the Commonwealth Club of California,” http://chavezfoundation.org/_cms.php?mode=view&b_code=001008000000000&b_no=16&page=1&field=&key=&n=8.
- Cervantes, Miguel(2011), “18 years after his death, Cesar Chavez still battles in the Texas Legislature,” *Borderzine: Reporting Across Fronteras*, May 6, <http://borderzine.com/2011/05/18-years-after-his-death-cesar-chavez-still-battles-in-the-texas-legislature/>.

- Martín, Desirée A.(2014), *Borderlands Saints: Secular Sanctity in Chicano/a and Mexican Cultur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Martínez, Elizabeth(1999), *De Colores Means All of Us: Latina Views for a Multi-Colored Century*, Cambridge: South End Press.
- Ospino, Hosffman(2013), “Religious Education and the Communal shaping of a Christian Social Consciousness: The Testimony of César Chávez,” *Religious Education*, Vol. 108, No. 4, pp. 403-417.
- Polletta, Francesca(2004), “Can You Celebrate Dissent?: Holidays and Social Protest,” Amitai Etzioni and Jared Bloom(eds), *We Are What We Celebrate: Understanding Holidays and Rituals*,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151-177.
- Shaw, Randy(2008), *Beyond the Fields: Cesar Chavez, The UFW, and the Struggle for Justice in the 21st Century*, Berkeley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U. S. Census Bureau(2011), *The Census Briefs*, The Hispanic Population: 2010, pp. 1-16. <http://www.census.gov/prod/cen2010/briefs/c2010br-04.pdf>.
- Vargas, Zaragosa(2011), *Crucible of Struggle: A History of Mexican Americans 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 Era*,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eber, David J.(1973), *Foreigners in Their Native Land: Historical Roots of the Mexican Americans*,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Westheimer, Joel and Joseph Kahne(2004), “Educating the “Good” Citizen: Political Choices and Pedagogical Goal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37, No. 2, pp. 241-247.
- William-White, Lisa and Dana Muccular et al.(eds.)(2013), *Critical Consciousness in Curricular Research: Evidence from the Field*,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Inc.

박 구 병

아주대학교
 kbpark@ajou.ac.kr

논문투고일: 2015년 1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5일

¡Sí Se Puede!: César Chávez Day in the Southwest of the United States

Koo Byoung Park

Ajou University

Park, Koo Byoung(2015), ¡Sí Se Puede!: César Chávez Day in the Southwest of the United States.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issue of ethnic holidays by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César Chávez Day in the Southwes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21st century. César Chávez was widely acknowledged as a remarkable leader of migrant workers and a founder of America's first successful union of farm workers. Although he ran the union along authoritarian lines and ultimately failed to keep its unity, Chávez's legacy as a Chicano leader, and public interest in his life and valu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especially with the growing influence of Latino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Educating and commemorating César Chávez's legacy, and making the practice a new state holiday was, as it were, efforts to realize cultural justice that would be suitable for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ies. Although the celebration of César Chávez Day in California and Texas was involved in hot debates related to politics of memories,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ethnic holidays have contributed to seeking broader national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by going beyond the purpose of domesticating dissent.

Key words César Chávez Day, California, Latino, State Holiday, National Identity, Politics of Memories